

# 태고종 스님 되려면 동방불교대 졸업해야

## 내년부터 '선교육 후속도' 제도 전면 시행

태고종의 득도 수계 자격 기준이 엄격해진다.

태고종(원장 운산은 내년부터 종립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방불교대학내에 설치 예정인 행자승의 강좌를 이수한 자에 한해 합동득도 수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으로 출가하려면 동방불교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총무원회는 7월 3일 열린 총무원회에서 승려 자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권고 사항으로만 돼 있던 '선교육 후속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동방불교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특정 사찰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 교육 받으면 득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방불교대학의 정규과정(통신 과정 포함)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태고종 승려가 될 수 없게 됐다.

동방불교대학의 교육과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종단과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겠지만 득도 수계 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며 "우선 스님을 양성하는 특화된 승과학과를 신설하는 방안과 승려를 지원한 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 이수 학점제를 도입하는 안, 통선교육을 활용한 학점 이수제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태고종은 1년간 한시적으로 현

재 4주간 진행되는 합동집체교육과 합동 득도 수계식이 중단된다. 사실상 7월에 열리는 합동득도 제30기 과정이 동방불교대학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이 수계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사찰 및 스님들의 양적 팽창에 주력, 스님들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출가 스님이 단 한명도 안나오더라도 적법하고 엄정한 관리와 종단의 검증 교육을 통해 정제화된 승려가 종단의 중심을 이루는 내실 있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10월안에 전국교구 총무원장 및 종진스님 연찬회를 통해 득도수계 기준 강화에 따른 동방불교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 원효종 종단 증명서류 갱신 발급

### 7월 31일까지

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은 7월 31일까지 각종 종단 증명서류를 갱신 발급한다.

원효종은 벽송 스님이 지난해 12월 임시 총정에 추대됨에 따라 이전까지 종단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모

든 임원의 직책이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단에서 발급한 '사람등록증, 주지 임명장 등 기타 각종 증명서류'에 대해 새로 갱신 발급한다고 종도들에게 발표했다.(02)735-0501

김주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총지종 종조법설 CD제작

총지종은 원성 대종사 탄신 1백주년을 맞아 원성대종사 설법집인 <종조법설>의 내용을 이규형 원음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반을 제작해 7월 중순부터 일반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제작될 이번 음반에는 그동안 책으로만 읽던 원성 대종사의 법문이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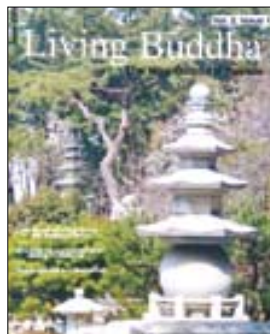
총지종 화평정사는 "총지종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조법의 설

법 내용을 들으며 명상과 요가도 할 수 있도록 제작해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02)552-1080 김주식 기자

## 태고종 구족계 수계 일정 연기

태고종은 당초 7월 4, 5일 양일간으로 예정됐던 구족계 수계 산림법회를 8월 21~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태고종 사회부장 변현 스님은 "구족계 법회는 하안거 해제와 백중기도 기간 이후 불행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종도들의 여론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주식 기자



## 원불교 영문 매거진 'Living Buddha' 발간

원불교 영문지 <Living Buddha: 산부처> 제 2집이 6월 30일 원광대 박광수 교수에 의해 출간됐다. <Living Buddha>는 산부처 또는 활불(活佛)의 의미로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산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대중잡지다. 문명과 종교간의 갈등과 대화를 특별 주제로 잡은 이번호에는 하바드대 푸웨이밍 교수의 '세계화와 문명간의 대화' 템플대 스워드 교수의 '종교간 대화와 지구촌 대화' 박광수 교수의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등의 기고가 실려 있다. 김주식 기자

## 부대 휴게실·화장실에 '부처님 말씀'

휴일이라 부대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 김은욱 병장은 한쪽 벽에 새로 부착된 포교게시판의 법구(法句)를 읽으며 부모님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전역하면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남은 군생활도 보람있게 보내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있었다.

호국 한송사에서 군중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광수 병장도 화장실에 붙여 있는 게시판 속 글인 '용서하기'를 읽으니 잠시나마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포교게시판 글귀가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이다.

## '지하철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210개

###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막사에 설치 도선사 후원... 호응 좋아 더 확대 예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회장 혜자, 이하 풍경소리)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후원으로 7월 2일 강릉 제18전투비행단 군 막사에 포교 게시판을 부착해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게시된 포교 게시판을 지하철 역사에 붙여놓는 포스터 크기의 게시판 40개가 장병들의 휴게실, 5x7 사이즈 150개가 화장실에 각각 부착됐다. 16절 크기의 게시판도 20개가 군장병들의 휴식공간 곳곳에 게시되어 장병들의 군생활에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포교 게시판을 한달에 한번 교체되며 쉽게 게시물을 교체 할 수 있도록

## 경기지역 군법당에 '화랑좌복' 전달

### 정역순 보살 2차분 3210채 보시

조계종 군중교구(주지 일면)는 7월 5일 경북 칠곡 화랑 선원(원장 정역순)으로부터 군법당 화랑 좌복 3210채를 전달받았다.



화랑좌복 전달식 모습.

화랑 좌복은 '이불 보살'로 유명한 정역순 보살이 지난 해부터 직접 만든 것으로 2월 14일 1차분 2410채가 강원도 동부전선 군법당에 보내졌다.

이번 2차분은 8톤 트럭 2대 분량으로 국방부 호국 원광사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과 후방 부대 및 공군·해군 법당에 전달됐다.

##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점망쳐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 "法句 大하니 마음 편안해져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가운데)의 후원으로 7월 2일 제18전투비행단 군막사 휴게실·화장실 등 200여 곳에 법구가 적힌 포교게시판이 게시됐다.

특수 설계되어 있어 관리하는데도 편리하다.

도선사는 이번에 부착된 210개의 게시판 제작 경비를 모두 후원했고 부대에서 더 많은 장병들이 포교 게시판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추가 제작도 계획하고 있다.

제18전투비행단 김영민 부단장은 "풍경소리의 게시판을 특정 종교의 법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짝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많은 장병들이 포교 게시판을 보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의 지하철 역사 2,000곳에 포교 게시판을 부착해 왔고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주지 일면)와 함께 군 막사에 포교 게시판을 걸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풍경소리는 향후 지역 사찰과 연계를 통해 군부대에 포교 게시판을 부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포교 게시판의 주옥같은 글귀는 집을 떠나 군생활을 하는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있고 맑고 건강한 군생활을 돕고 있다"며 "군 막사에는 처음으로 포교 게시판이 부착되었지만 불자들이 사찰, 불교 단체 등의 후원으로 전 부대에 게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중특별교구)

## 만인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입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중교구로 연락주시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우리은행 1005-580-051116

농협 094-01-156954

지로번호 7681972

조흥은행 377-01-058158

우체국 010025-01-010767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예금주: 군중특별교구

## 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내

조계종 군중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www.gunbulkyo.org



## 대한불교조계종 군 중 특별교구